

# 재정 공개로 사찰 운영 '모범'

### 마산 정법사 新사찰경영 눈길

사찰의 재정 공개는 우리 불교를 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과감한 재정 공개를 통해 사찰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 사찰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마산시 추산동에 위치한 정법사다. 정법사는 지난 1996년 주지 지태 스님 부임 이후 사찰재정을 투명화하고 불교대학을 통한 신도교육 강화, 무료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마산 일대에 새로운 신행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법사 주지 지태 스님은 "출가 당시 불교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종교도 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사찰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주지가 되면 새로운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결심을 했다"며 당시 심정을 설명한다.

스님은 정법사 주지 부임 이후 이런 다짐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사찰의 재정 공개다. 스님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찰 재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한 달에 한 번 운영위를 주체해 재정을 공개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찰운영 현황을 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새로운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불교대의 활성화를 통한 인재 양성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불교대는 신도를 모으기 위한 것도 아



정법사는 지난 1996년 주지 지태 스님 부임 이후 사찰재정을 투명화하고 불교대학을 통한 신도교육 강화, 무료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신행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2012년 불교대 입학식 장면.

운영위 조직 사찰 운영 이끌어  
신도교육으로 인재 양성 성공  
무료급식소도 지역사회에 기여

니고 신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도들이 불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이를 위해 정법사는 1999년 영축불교대학을 개설 강의를 6개월에 10만원으로 저렴하게 측정해 대중들이 부담없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단순한 교양 교리 강좌에만 그치지 않고 전공반을 개설해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 신도 교

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도 주목할만하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급식소는 인근 저소득층 이웃 2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28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다. 보현의집 역시 초창기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봉사인원 300명에 마산시의 지원을 받을 만큼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제 정법사는 신도들이 신생활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불사에 들어갔다. 인근 20여 채의 주택을 매입해 불사를 시작한 정법사는 내년 부처님 오신날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 공사중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의천 대각국사 911주기 열반 다례재 봉행

### 천태종, 11월 15일 개성 영통사서

천태종(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과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심상진)이 11월 15일 개성 영통사 경선원에서 '영통사 낙성 7주년 및 의천 대각국사 911주기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사회부장직무대행 월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 화합과 단합을 기초한 통일불사의 성지인 영통사에서 이 뜻깊은 합동법회를 봉행하는 것처럼, 남과 북이 자주 만나 우리 민족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이어 남측대표 갈수 스님과 북측대표 차금철 부장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민족의



천태종과 조련은 11월 15일 개성 영통사서 대각국사 911주기 열반재를 봉행했다.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하려는 우리들의 실천행을 천리해안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불심한마음으로 통일조국·현세지상정도를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들의 서원이 원만성취 되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 큰마음 실천회 창립 1주년 정기 총회

### 11월 10일 대구 문화 웨딩서

불교의 대승정신 실천을 지향하는 '큰마음 실천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갖고 창립 취지를 되새겼다.

큰마음 실천회는 11월 10일 저녁 대구 문화웨딩에서 회주 원인 스님과 김철 수도암 주지 원덕 스님 등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총회를 개최했다. 큰마음 실천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승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불자들이 지켜야 할 186개 덕목과 불교 의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지침서를 발간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11월 10일 열린 큰마음 실천회 정기총회.

이 자리에서 원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마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지침서를 펴냈다"면서 "종교와 민족, 국가를 초월한 큰 원력을 갖고 대승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부장

# 청주시 '직지심체요절' 찾아 불교계 노크

청주시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 금속활자본을 찾기 위해 불교계의 문을 두드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1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직지찾기 활성화 방안과 불교문헌 자료 조사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금속활자본 직지가 국내 여딘가에 있다면 불교계가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직지가 범어 등을 수록한 불서인데다 간행 장소도 사찰(청주 흥덕사)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적극 협조한다면 학동안 뜸했던 직지찾기 운동에 불을 댕길 것으로 보인다.

# 선본사 합격yet '나눔'

전국적인 기도도량 팔공산 갯바위 선본사가 수험생 부모들에게 합격의 기원하는 떡과 엿을 나눠줬다. 선본사는 11월 7일~8일 이틀 동안 갯바위 참배단 앞에서 8천여 개의 떡과 엿을 나눠주며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했다.

선본사 주지 덕문스님은 "수험생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갯바위 부처님께 공양 올린 떡과 엿을 나눠주는 행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팔공산 갯바위에 최근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평소보다 서너배 많은 하루 4~5만명의 불자들이 찾아 수험생 자녀의 합격을 기원했다.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계류 주변 음식점, 산사 청정성 해친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침계루(枕溪樓)라고 이름 붙여진 건물이 여러 곳에 있다. 그중에서도 순천 송광사, 해남 대흥사, 울산 석남사의 침계루는 건물도 좋은데다 자리잡은 곳이 특별하여 단연 돋보인다. 침계루라는 이름은 계류를 베고 누운 건물이라는 뜻이니 계류에 바짝 붙어 지었을 터이고 그런 까닭에 이 건물에서 하룻밤 묵는 경우에는 밤새도록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적막한 밤에 침계루에서 들는 물소리는 가히 환상적이다.

우리나라 사찰은 대부분 높은 산, 깊은 골에 자리 잡은 까닭에 물과 친숙한 장소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는 이 물이 지극히 청정하여 식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목욕시설이 변변

치 못했던 그 옛날 사역을 휘감고 흐르는 계류는 스님들이 몸을 씻는 곳이기도 했고, 좌선하기 좋은 곳이었다. 그만큼 사찰에서 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으며, 계류의 물은 신성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사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일이다. 일단 사람들이 찾아와야 포교도 되는 것이고 사세도 번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이 제 모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요즘과 같이 단풍이 아름다운 철에 산사에 가보면 등산객이나 관광객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신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더구나 장사꾼들은 이러한 때를 놓치지

않는다. 사찰 올라가는 길에 자리 잡은 음식점들은 계류가에 자리를 만들고 산을 찾는 사람들을 유인한다.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계류의 물소리와 계류 주변의 단풍이 좋아 이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데, 여기에서부터 계류의 청정성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찰과 가까운 곳의 계류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자연재(自然財)이다. 아직도 우리 사찰은 환경의 오염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자연훼손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사찰주변의 자연도 금방 오염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계류는 상류에 오염원이 있거나 사찰 자체에서 오염을 시키거나 음식점들에 의해서 오염이 될 경우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생태적으로 취약한 환경이다. 우리나라 사찰이 아름다운 것은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렇다면 사역을 휘감고 흐르는 계류의 청정성을 지켜내는 것은 불교계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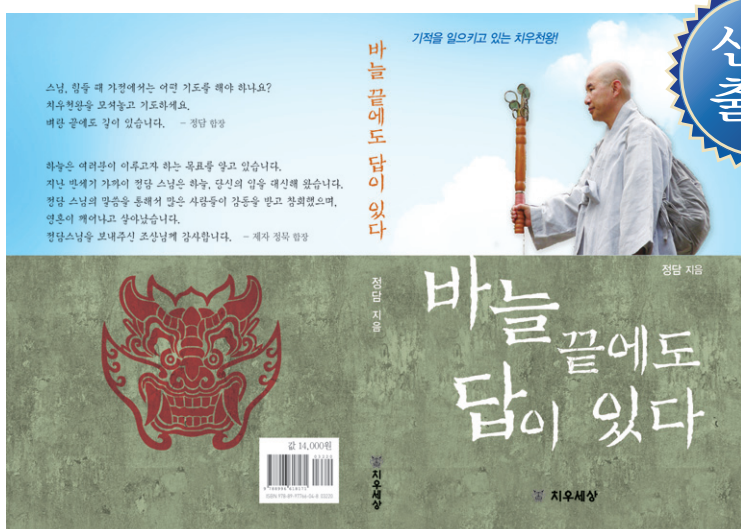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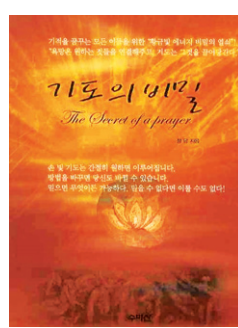
산사로가는 길의 계류가에 자리잡은 음식점은 주변 환경의 청정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강원도 초사찰

# "눈"만 보면 압니다!

##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신간출판



1. 이것 저것, 어느 곳에 점을 봐도 신통치 않을 때
2. 이사, 매매, 부부, 자식문제 궁금한 분
3. 사업성공, 주식, 선물음식 대박비법
4.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되는 사람은 되는길이 있습니다.

### 약력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총무원장
- 주요저서: 기도의비밀, 불교척척박사



스님! 가정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되나요? 이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055)932-4103, 010-9537-0034

용문사: 경남 함천군 대병면 성리 산18-1번지 (영성테마파크와 함천담중간지점)

카페 주수침에 합천용문사 검색을 쳐주세요!

# 공기 압축열 보일러

## 연료비 걱정으로부터 완전 해방!!

### 획기적인 절감!! 편리하고 화재에 안전합니다. 일반 전기보일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 "마술"이 아닌 "신기술"

### 하루 1만원으로 50평 난방실현! 하루 2만원으로 100평 난방실현!

심야대비 50% | 도시가스, 전기보일러 대비 70% | 기름대비 80% 절감

초 록	소비전력	난방열량	월간 예상연료비 (단위:원)
압축열 보일러	5kw/h	난방 120㎡(약 4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13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200,000
압축열 보일러	7.5kw/h	난방 180㎡(약 6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0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300,000
압축열 보일러	10kw/h	난방 240㎡(약 8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7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400,000

최고의 기술력, 고객 만족 품질경영의 원칙과 철저한 A/S로 고객님께 "신뢰와 정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 (주)초록에너지

대표전화 1666-7634